



광산구, 화재 사고 예방 위한 3자 협약 체결

광주 광산구가 지난 14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광주 광산소방, 50객실 이상인 숙박시설 대표자들과 함께 화재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3자 협약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체결·안전관리 훈련을 널리 알림으로써, 숙박시설 관계인과 이용객에게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재 안전을 대비하고 △화재 재발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화재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안전관리 제고에 나선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화재 사고가 시민의 우려가 큰 만큼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호남통계청, 호남권 지역통계 발전토론회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14일 라마다 충장호텔에서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자체 지역통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 인프라 확충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2024년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토론회는 각 지자체의 통계인프라 확충 성과와 정책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활용 우수사례 및 지역통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역통계 우수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광주 동구의 ‘쓰레기 데이터 확보·분석을 위한 자원순환 혁신 플랫폼’과 전북연구원의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 최우수 사례로 뽑혔으며, 최우수 기관으로는 제주도가 선정됐다.

빈현준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지역정책에 필요한 품질 높은 통계 생산 및 활용’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례들이 지역정책에 반영되기를 당부했다. 나다운 기자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협의회, ‘제8차 정례회의’ 개최

북구·광산구·담양·장성 등

광주 북구·광산구와 담양·장성 등 4개 기초단체가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산구에서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제8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협의회장인 문인복구청장을 비롯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한중 장성군수, 정광선 담양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안건은 △광주·담양 지방정원 조성 △고항사랑기부제 활성화 △국도 24호선(장성 진원-담양 대전)

확·포장 공사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과제를 다뤘다.

특히 광주·담양 지방 정원 조성은 북구 월산보에서 담양 영산교까지 약 28만㎡ 생태 자연 구간을 활성화하는 안건으로 현실화 된다면 전국 최초 지자체 간 생태관광 자원 개발 협업 사례가 된다.

문인복구청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정원,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과 같은 주민 삶에 직결되는 현실적인 논의까지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서부소방, 지역 병원과 응급의료 체계 구축

광주 서부소방은 지난 15일 지역 내 5개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응급환자 수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17일 서부소방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진원 과정에서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119구급대 이송 환자의 적극적인 수용 △각 병원의 운영 현황 공유와 협력 방안 모색 △소방서와 병원 간 비상연락망 최신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해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는 한국형 중증도분류체계(PREKTAS) 적용 △구급활동 병원 제공 시스템 상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정상이 기자



광주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

광주 서구는 지난 15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17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서구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2025-2029년) 작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추진계획은 4월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0’을 바탕으로 서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세부목표·지표·세부사업 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구정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서구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며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정책들을 통해 주민의 생활에도 지속가능의 개념을 녹아들게 해 미래세대가 행복한 착한 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인자위, 일학습병행 소통·확산 세미나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일학습병행 소통·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세미나는 일학습병행 경진대회 수상기업과 공동훈련센터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일학습병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재직·재학 공동훈련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참여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거제제일해양(주) 노진철 이사가 일학습병행 경진대회 학

습기업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학습근로자 수상자인 제이디텍㈜의 김성범 사원과 전남지역 공동훈련센터 우수 전담자인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이일 매니저의 사례발표를 통해 일학습병행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광주인자위 이후형 사무처장은 “수상자들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일학습병행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일학습병행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 남부경찰, 청소년 일탈 대비 합동순찰

광주 남부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청소년들의 일탈·범죄행위를 예방하고자 야간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사진)

17일 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번 야간 순찰에는 남부경찰(범죄예방·여성청소년과), 기동대, 남구, 남구의회, 남구자율방범연합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수능 이후 청소년 비행신고가 16% 증가했던 점을 대비해 남부경찰은 청소년 일탈·비행 우려장소를 선정, 가시적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지역 거점 및 단력순찰을 병행했다.

남부경찰 송세호 서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해 주시는 협력단체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 남구 7979봉사단, 돼지고기 나눔

지난 15일 광주 남구 진월동 7979 봉사단(단장 조복순)은 진월동 회의실에서 ‘2024년 7979 봉사데이 날’을 맞아 돼지고기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번 기막은 전남대 경영자과정 50기 동창회(회장 선희기)에서 취약계층 이웃에게 우리나라 돼지고기 한돈을 드시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나눔 실천을 실현하기 위해 돼지고기 50인분이 지원됐다.

조복순 7979봉사단장은 “공동체의 소중한 봉사자들이 모여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은 나와 우리 진월동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문희 진월동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돼지고기를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주민을 보다 더 잘 보살피고 섬기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민경훈, JTBC PD와 오늘 결혼…‘아는 형님’ 멤버들 축하

밴드 ‘버즈’ 출신 가수민경훈(40·사진)이 17일 결혼한다.

민경훈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JTBC PD와 결혼식을 올린다. JTBC 예능물 ‘아는 형님’ 멤버들이 결혼식 축하를 부를 예정이다.

예비신부는 현재 ‘아는 형님’ 연출을 맡고 있지 않다. 새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27일 방송된 ‘아는 형님’에서 민경훈은 “(예비신부와) 알고 지낸지는 몇 년 됐다. 작년 연말쯤부터 몰래 교제했다”며 예비 신부와 러브 스토리를 털어냈다. 이어 “비슷한 취미가 같았다. (캠핑)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락했다”고 덧붙였다.

민경훈은 이에 앞서 결혼 소식을 직접 알렸다. 지난 7월10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그는 “다가오는 11월에 제가 결혼을 한다. 가정을 이뤄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고픈 좋은 사람을 만나 서로의 안식처가 돼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다.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달라.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스무살에 데뷔해서 어느덧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부족했던 저를 지켜봐 준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언제나 감사드리다”고 했다. 뉴시스